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성격강점을 중심으로*

박 윤 아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 양육미혼모가 겪는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격강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미혼모 94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삶의 질, 성격강점, 사회적 지지, 부모역할만족도, 낙인인식, 양육의지, 성격병리 5요인, 부모지지, 자녀 아버지 지지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군 중 직업유무와 질병유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중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직업스트레스, 성격강점 중 낙관성과 사랑, 성격병리 5요인 중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 기타 보호요인군 중 양육의지가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미혼모의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학구열, 사회지능, 공정성, 용서, 겸손, 신중성, 감사, 유머감각 성격강점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양육미혼모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가 양육미혼모에 대한 긍정심리학적 접근으로서 갖는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양육미혼모, 삶의 질, 성격강점, 사회적지지

* 2014년 한국여성재단의 양육미혼모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자료를 제공해준 한국여성재단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 교신저자 : 이영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Fax : 032-345-5189 / Email : yhlee@catholic.ac.kr

양육미혼모는 '법적으로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이성원, 2009), 미혼모의 대부분이 입양을 선택했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의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53.5%가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 달리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선택하는 양육 미혼모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김혜영 등, 2009). 또한 20대 중반 이후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고학력이 증가하는 등 미혼모 연령분포나 교육 등에 있어서도 점차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양민욱, 2012).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나 원인규명(노승미, 2002; 배영미, 2001;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가 입양이나 양육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김혜선, 김은하, 2006; 노충래, 김원희, 2004; 윤미현, 2000; 이명순, 박주현, 2008), 미혼모를 위한 정책이나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연구(김유정, 조애저, 노충래, 2006; 홍봉선, 남미애, 201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개선을 위한 연구(김혜영, 안상수, 2009; 김희주, 권중희, 최형숙, 2012; 이미정, 2009)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양육미혼모의 정신건강이나 행복,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드물다. 게다가 양육미혼모의 정신건강과 관련 연구는 대부분 우울이나 스트레스, 양육에서의 위협요인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고숙경, 2002; 김만지, 2000; 변호순, 최정균, 2016), 양육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경험이나 변화, 성장 및 개인적 강점 등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강점과 긍정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질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2000). 인간은 누구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공통된 욕구를 가질 것이나,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과 다른 과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해서, 행복의 구성 요소나 그러한 요소들의 기능이 다를 수밖에 없다(박영신, 김의철, 2006). 예를 들어, 박영신과 김의철(2006)의 연구에서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이외에도 학업성취, 건강, 여가생활 등이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요소로 포함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세대별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2003). 김명소 등(2003)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에 있어 전 연령대에서 성취 및 자기수용감과 경제력 등의 요인이 높게 나타났고, 30-50대의 경우 배우자와의 사랑 요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40-60대의 경우 여가생활 요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사회정치, 30대는 이타심, 40대는 자녀, 50대는 종교, 60대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요인이 독특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간 성차도 보이고 있는데, 삶의 만족도

에 있어 남성의 경우, 성취 및 자기 수용감, 경제력, 배우자와의 사랑, 여가, 이타심의 순으로, 여성의 경우, 성취 및 자기 수용감, 경제력, 여가, 배우자의 사랑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유기설, 2003).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세대별, 성별 등 다양한 하위집단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김의철, 박영신, 2004).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미혼모에게 있어 삶의 질이나 만족감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남미애(2013)의 연구에서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부모지지가 많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이 적다고 인지할수록 전반적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양육미혼모 뿐만 아니라 한부모 여성가장의 스트레스원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스트레스원이 양육 스트레스로(김혜란, 2006), 혼자서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자녀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전반적 생활만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전혜자, 김미량, 2006).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변호순, 최정균, 2016),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미혼모 자신의 우울이나 전반적 생활만족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과정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김혜란(2006)은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강조하

였다. 남미애(2013)는 사회 지지 중에서도 청소년 양육미혼모에게 있어 부모 지지와 자녀 아버지 지지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이성원(2009)은 양육미혼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역할만족도, 사회적지지, 양육의지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이성원(2009)은 양육미혼모가 자녀 출산 후 입양과 양육 중 양육을 결정한 뒤 실제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양육미혼모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양육 의지를 고취시키는 노력을 통해 부모역할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미애(2013)의 연구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을 인식하는 정도도 양육미혼모의 생활 만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되었다. 김희주, 권종희, 최형숙(2012)은 양육미혼모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이러한 차별의 경험이 양육미혼모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독립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양육미혼모의 전반적 생활 만족이나 건강한 삶에 있어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지, 편견이나 차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양육미혼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의지, 사회적 지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로 청소년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한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며, 대체로 생활 만족감이나 우울 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양육미혼모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한편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을 주

체적으로 선택하여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김영신, 2011; 김현경, 이민영, 2008; 양민욱, 2012에서 재인용), 자녀로 인해 행복을 느끼거나 책임감이 강해지고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김혜영, 안상수,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에 초점을 두어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양육미혼모의 심리적 강점 중 긍정적 특질인 성격강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성격 강점과 덕성을 잘 계발하고 발휘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권석만, 2008).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s)은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인 특질로(Park, Peterson, & Seligman, 2004),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인간의 긍정적 특성에 대한 Values In Action (VIA)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는데, VIA 분류체계는 6개의 (상위)미덕과 24개의 (하위)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임영진, 2012). VIA의 핵심덕목과 성격강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혜와 지식(창의성, 호기심, 판단 및 개방성, 학구열, 통찰), 용기(용감성, 인내, 진실성, 열의), 인간애(사랑, 친절, 사회지능), 정의(협동심, 공정성, 리더십), 절제(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초월(심미안, 감사, 희망, 유머, 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격강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Park 등(2004)의 연구에서, 미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희망, 열의, 감사, 사랑, 호기심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심미안, 창의성, 판단, 학구열과는 낮은 상관을 보였다. Shimai, Otake, Park, Peterson과 Seligman(2006)의 연구에서는 활력, 낙관성, 호기심, 감사와 같은 성격강점이 행복감과 높

은 상관을 보였으며, 각 문화에서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과 높은 상관을 보인 공통적 성격강점은 낙관성과 감사라고 하였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영진(2012)의 연구에서 사회지능, 유머, 친절, 사랑, 리더십, 활력, 낙관성 등 성격강점이 정신적 웰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정신적 웰빙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 강점은 낙관성이었다. 최은미(2009)의 연구에서, 한국 성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은, 낙관성, 용감성, 신중성, 열정이었고,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은, 사랑, 영성, 학구열, 낙관성, 진실성이었다. 이와 같이 여러 문화에서, 그리고 연령에 따라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과 성격 강점의 관련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성격강점과 덕성은 삶의 만족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더욱 성장하도록 만드는 성격특질 중 하나로 보고 있다(권석만, 2008). 성격강점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 장애 및 여러 스트레스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강점이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Peterson, Park과 Seligman(2006)의 연구에서 신체적 질병의 과거력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서 용기, 친절, 유머의 성격강점이 조절효과를 보였고, 심리적 문제의 과거력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서 심미안이나 학구열의 성격강점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성인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Veronika와 Lance(2010)의 연구에서는 인지행동 집단치료 전의 희망, 영성, 심미안의 성격강점이 치료 후 우울증 회복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스트레스에

대한 김선영과 윤혜영(2013)의 연구에서, 은퇴 남성의 우울을 성격강점 중 낙관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학생의 어머니에 대한 전주연과 이종연(2015)의 연구에서는, 양육 과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초월 강점을 가짐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공강석과 하승수(2015)의 경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찰의 직무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겸손과 낙관성 성격강점이 조절효과를 보였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이, 문화, 스트레스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 강점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보다 강조되거나 보다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으며, 어떠한 성격 강점이 행복 및 삶의 만족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도 달라질 수 있다(윤성민, 신희천, 2012). 이러한 관련성에 따라 특정 상황이나 스트레스 등에서 강조되는 성격강점을 활용하도록 했을 때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복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공강석, 하승수, 2015). 이에 한 문화권 내에서도 특정한 대상 집단에 따라 어떠한 성격 강점이 높게 나타나는지, 어떠한 성격강점이 행복한 삶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긍정심리적인 개입을 적용할 때 어떤 성격 강점을 활용하는 것을 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윤성민, 신희천, 2012), 본 연구에서는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과 양육미혼모가 겪는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개별 성격강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 뿐만 아니라 성격의 폭넓은 영역을 평가하고자, 주요 성격 특성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다면적 인성검사의 성격병리 5요인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2005). 성격병리 5요인 척도는, 성격장애와 정상 성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5가지의 폭넓은 성격 영역(공격성, 정신증, 통제 결여,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을 다루고 있다(Harkness & Lilienfeld, 1997). 공격성 척도는 공세적이고 도구적인 공격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정신증 척도는 현실과의 단절, 기이한 감각 및 지각적 경험 등을 평가하며, 통제결여 척도는 위험추구적이고 충동적이며 덜 관습적인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김중술 등, 2005). 또한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척도는 정보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걱정을 하고 자기비판적이 되며 죄책감을 느끼는 점 등과 관련되어 있고,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 척도는 기쁨을 느끼고 즐거운 어울림을 경험하는 능력이 없을 때, 쾌락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할 때 낮은 긍정적 정서성을 갖는 점을 반영하는 척도이다(김중술 등, 2005). 성격병리 5요인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전미주, 권지은, 황순택, 2011), 양육 미혼모의 삶의 질에 있어 정상적 기능과 임상적 문제와 관련되는 성격 특질을 평가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정리해보면,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우울하거나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이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이와 같이 삶의 질에

있어 차이에 기여하고 있는 제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학적 변인군, 스트레스 변인군, 개인내적 변인군, 기타 보호요인군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양육 미혼모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개인이 가진 개별 성격강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고, 총 9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014년도 한국여성재단의 양육미혼모모자 가정 건강지원사업에서 연구에 동의한 사람들로, 연구자가 질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무성의하게 작성된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된 사례는 94명으로, 영남권 거주자는 50명이고 수도권 거주자는 44명이다.

측정도구

양육미혼모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양육미혼모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문태정(2003)의 미혼모 스트레스 척도와 김혜란(2006)의 한부모 여성가장의 스트레스원 척도에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총 35문항을 사용하였다. 경제에 관한 스트레스원 4문항, 자녀 양육 스트레스원 9문항,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원 6문항, 건강에 관련된 스트레스원 6문항, 미혼모의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원 3문항, 가족 관계 스트레스원 3문

항, 사회적 낙인 관련 스트레스원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1년간 경험유무를 표시하도록 하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김혜란(2006)의 연구에서 전체 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5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다.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성길 등(2000)은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의 한국판을 개발하였고,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도 개발하였다. 간편형 척도는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반적인 삶의 질과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환경 영역을 측정한다. 민성길 등(2000)의 연구에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Cronbach's α)는 .93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은 .73, 신체적 건강은 .83, 심리적 영역은 .85, 사회적 관계 영역은 .54, 환경영역은 .81이다.

성격강점검사

성격강점검사(Character Strength Test, CST)는 권석만, 유성진, 임영진, 김지영(2010)이 VIA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개발한 것으로,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강점, 주관적 행복척도, 사회적 선회도 척도 등으로 구성된다. 상위 6개 덕목은 지혜 및 지식과 관련된 강점들(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인간애와 관련

된 강점들(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용기와 관련된 강점들(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절제와 관련된 강점들(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정의와 관련된 강점들(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초월과 관련된 강점들(심미안,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 영성)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검사의 250문항 중 강점 척도마다 2문항을 선정하여 50개 문항으로 축소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6이고, 각 하위영역별로는 지혜 및 지식이 .87, 인간애가 .75, 용기가 .85, 절제가 .80, 정의가 .82, 초월이 .85이다.

사회적 지지 척도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윤영주(2001)가 수정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위요인은 정서적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정보적지지 4문항, 평가적지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고, 정서적 지지는 .93, 물질적 지지는 .90, 정보적 지지는 .90, 평가적 지지는 .48이다.

부모역할만족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역할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Duke, Rose과 Halverson(1997)이 개발한 도구로, 부모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부담감,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묻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서혜영, 1999), 이를

서혜영과 이숙현(2002)이 요인분석을 통해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축소된 척도를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5이다.

낙인인식척도

낙인인식척도는 Link(1987)가 정신과 환자는 것에 대한 차별과 거절을 스스로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나, Martin과 Dean(1987)는 이 척도를 동성애자에게 적용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거절에 대한 예상을 측정하였다(박수현, 2010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거절에 대한 예상을 측정하는 척도를 양육 미혼모에게 적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이나 거절 받는다고 예상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수현(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4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다.

양육의지

양육 미혼모의 양육의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성원(2009)이 개발한 도구이다. 이성원(2009)은 양육미혼모의 양육의지를 '양육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이 척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 극복 자신감 요인, 양육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요인, 양육 의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행동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다.

성격병리 5요인 척도

다면적 인성검사-2(MMPI-2)의 성격병리 5요인 척도(Personality Psychopathology-Fivel PSY-5)를 사용하여, 성격 문제를 측정하였다. 총 139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격병리 5요인은 공격성(Aggressiveness), 정신증(Psychoticism), 통제결여(Disconstraint), 부정적 정서성/신경증(Negative Emotionality/Neuroticism),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Introversion/Low Positive Emotionality)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지지

양육 미혼모의 부모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현아(2007)가 사용하였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4이다.

자녀 아버지지지

자녀 아버지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남미애(2013)가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아버지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첫째, 수도권 거주자와 영남권 거주자 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비교하

였는데, 변인의 특성에 따라 χ^2 -검증,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삶의 질, 성격강점, 사회적 지지 등 주요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을 인구사회학적 변인군, 스트레스 변인군, 개인내적 변인군, 기타 보호요인군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격강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결 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94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44명으로 46.81%, 영남권 거주자는 50명으로 53.19%에 해당하였다. 두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비교한 결과, 연령과 출산연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있어 영남권 거주자 집단에 비해 수도권 거주자 집단이 유의미하게 연령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고, $t(94)=3.21, p<.01$, 출산연령에 있어서도 영남권 거주자 집단에 비해 수도권 거주자 집단이 유의미하게 출산 연령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t(94)=2.79, p<.01$. 이 외 변인인 학력(교육연수), 미혼모로 아이를 양육한 기간, 소득수준(월수입), 직업유무, 수입유무, 질병유무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참조).

표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수도권-영남권 거주자간 평균비교 및 빈도비교

		수도권 거주자 (N=44)	영남권 거주자 (N=50)	t 또는 χ^2
연령		34.39(5.10)	30.50(6.47)	3.21**
출산연령		29.89(5.01)	26.98(5.44)	2.68**
학력		13.51(2.46)	13.29(2.36)	0.45
양육기간		4.50(2.42)	3.52(3.03)	1.72
소득수준		88.28(85.51)	72.44(51.61)	1.10
직업유무	유	25	21	2.63
	무	16	27	
수입유무	유	34	39	0.16
	무	9	11	
질병유무	유	18	14	2.22
	무	24	36	

** $p < .0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성격강점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성격강점, 사회적 지지, 부모역할만족도, 낙인인식, 양육의지, 성격병리 5요인, 부모 지지, 자녀 아버지 지지 간의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는 삶의 질($r = -.49, p < .01$), 사회적 지지($r = -.26, p < .05$), 부모지지($r = -.29, p < .01$)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고, 낙인인식($r = .51, p < .01$), 성격병리 5요인($r = .43, p < .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성격강점($r = .50, p < .01$), 사회적 지지($r = .54, p < .01$), 부모역할만족도($r = .47, p < .01$), 양육의지($r = .46, p < .01$), 부모지지($r = .46, p < .01$)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고, 낙인인식($r = -.44, p < .01$), 성격병리 5요인($r = -.50, p < .01$)

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강점은 사회적지지($r = .35, p < .01$), 부모 역할만족도($r = .33, p < .01$), 양육의지($r = .36, p < .01$), 부모지지($r = .33, p < .01$)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역할만족도($r = .46, p < .01$), 양육의지($r = .55, p < .01$), 부모지지($r = .45,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낙인인식($r = -.40, p < .01$), 성격병리 5요인($r = -.24, p < .0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역할만족도는 양육의지($r = .76, p < .01$), 부모지지($r = .31,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낙인인식($r = -.23, p < .05$)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인인식은 성격병리 5요인($r = .29,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양육의지($r = -.35,$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평균	표준 편차
1. 양육미혼모스트레스	1.00										67.81	35.79
2. 삶의 질	-.49**	1.00									72.55	17.92
3. 성격강점	.18	.50**	1.00								119.30	26.94
4. 사회적지지	-.26*	.54**	.35**	1.00							75.60	18.28
5. 부모역할만족도	-.12	.47**	.33**	.46**	1.00						102.52	19.79
6. 낙인인식	.51**	-.44**	-.08	-.40**	-.23*	1.00					32.93	10.15
7. 양육의지	-.19	.46**	.36**	.55**	.76**	-.35**	1.00				62.16	9.79
8. 성격병리 5요인	.43**	-.50**	-.13	-.24*	-.14	.29**	-.13	1.00			52.00	7.13
9. 부모지지	-.29**	.46**	.33**	.45**	.31**	-.41**	.36**	-.23*	1.00		11.16	4.90
10. 자녀 아버지 지지	-.04	.14	.18	.10	-.14	-.23*	.00	-.07	.10	1.00	5.61	2.82

* $p < .05$, ** $p < .01$

$p < .01$), 부모지지($r = -.41$, $p < .01$), 자녀 아버지 지지($r = -.23$, $p < .05$)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의지는 부모지지($r = .36$, $p < .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성격병리 5요인은 부모지지($r = -.23$, $p < .05$)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삶의 질에 기여하는 변인분석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인구사회학적 변인, 스트레스 변인, 개인내적 변인, 기타 보호요인의 변인을 차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투입은 단계적(stepwise) 선택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직업유무와 질병유무는 더미코딩을 하여 투입하였고, 학력은 교육연수로 처리하였다(표 3 참조). 스트레스 변인군은 스트레스 영역별로 투입하였고, 개인내적 변인군 중 성격강점은 개별 성격강

점을 투입하였으며, 성격병리 5요인도 각 요인을 투입하였다.

양육미혼모가 스스로 보고한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표 3에 제시한 변인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직업유무가 주관적 삶의 질을 10%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31$, $p < .01$, 질병유무가 주관적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27$, $p < .05$.

그 다음 단계인 스트레스 변인군에서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주관적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12% 정도 설명하였고, $\beta = -.36$, $p < .01$, 직업 스트레스가 주관적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5% 정도 설명하였는데, $\beta = .25$, $p < .05$,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단계인 개인내적 변인군 중에서는 성격강점 중 낙관성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가적으로 삶의 질을

표 3.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절차

단 계	군 집	독 립 변 인
1	인구사회학적 변인군	연령, 학력, 월수입, 부채, 직업유무, 질병유무
2	스트레스 변인군	경제 스트레스, 자녀양육 스트레스, 건강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 낙인 스트레스
3	개인내적 변인군	성격강점(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사랑, 친절성, 사회 지능,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심미안, 감사, 낙관성, 유머감각, 영성), 성격 병리5요인(공격성, 정신증, 통제결여,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
4	기타 보호요인군	사회적지지, 부모지지, 자녀아버지지지,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의지, 낙인인식

주. 종속변인: 삶의 질

표 4 .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 관련 변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β	t	R^2	$R^2 \text{ change}$	$F \text{ change}$
인구사회학적 변인군	직업유무	.31	2.77**	.10	.10	7.68**
	질병유무	-.27	-2.45*	.17	.07	6.00*
스트레스 변인군	가족관계 스트레스	-.36	-3.57**	.29	.12	12.72**
	직업 스트레스	-.25	-2.19*	.34	.05	4.79*
개인내적 변인군	낙관성	.48	5.99***	.56	.22	35.89***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31	-3.73***	.64	.08	13.92***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	-.25	-3.20**	.69	.05	10.27**
	사랑	.22	2.63*	.72	.03	6.91*
기타 보호요인군	양육의지	.24	3.19**	.75	.03	10.19**

주. * $p < .05$, ** $p < .01$, *** $p < .001$

22% 정도 설명하였고, $\beta = .48, p < .001$, 낙관성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병리5요인 중 부정적 정서성/신경증이 주관적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8% 정도 설명하였고, $\beta = -.31, p < .001$,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가 주관적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5% 정도 설명하였다, $\beta = -.25, p < .01$. 부정적 정서성/신경증과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격강점 중 사랑이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3%

정도 설명하였다, $\beta=.22, p<.05$.

그 다음 단계인 기타 보호 요인군 중에서는 양육의지가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3% 정도 설명하였다, $\beta=.24, p<.01$. 양육의지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성격강점이 삶의 질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단계 1에서 양육미혼모 스트레스를 투입하고, 단계 2에서 개별 성격강점을 추가하여 투입하였으며, 단계 3에서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개별 성격강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4개의 개별 성격 강점 중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난 개별 성격강점은 학구열, 사회지능, 공정성, 용서, 겸손, 신중성, 감사, 유머감각으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강점 중 학구열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 전체 변량의 2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86)=26.45, p<.001$. 학구열 성격강점은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18%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2, 85)=26.55, p<.00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학구열 성격강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2%를 설명하여, $F(3, 84)=3.98, p<0.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학구열 성격강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학구열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점수와 학구열 성격강점 점수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

누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수준과 학구열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학구열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t(40)=-3.23, p<.01$. 그러나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학구열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44)=-1.66, ns$.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학구열 성격강점의 조절효과에 대해 그림 1에 제시하였는데,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고 학구열 성격강점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고 학구열 성격강점이 낮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학구열 성격강점 수준간의 삶의 질 정도의 차이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강점 중 사회지능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 전체 변량의 2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86)=26.45, p<.001$. 사회지능 성격강점은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25%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2,85)=41.29, p<.00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사회지능 성격강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2%를 설명하여, $F(3,84)=4.34, p<.0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사회지능 성격강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지능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점수와 사회지능 성격강점 점수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수준과 사회

표 5. 양육미혼모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별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기준변인	예언변인	β	t	R^2	R^2 change	F change
삶의 질	양육미혼모스트레스	-.58	-6.30***	.24	.24	26.45***
	성격강점(학구열)	.44	4.99***	.42	.18	26.5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x 성격강점(학구열)	-.17	-2.00*	.44	.02	3.98*
	양육미혼모스트레스	-.46	-6.00***	.24	.24	26.45***
	성격강점(사회지능)	.49	6.34***	.49	.25	41.29***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x 성격강점(사회지능)	-.16	-2.08*	.51	.02	4.34*
	양육미혼모스트레스	-.51	-6.21***	.24	.24	26.45***
	성격강점(공정성)	.42	5.04***	.40	.16	23.27***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x 성격강점(공정성)	-.18	-2.17*	.43	.03	4.73*
	양육미혼모스트레스	-.51	-6.08***	.24	.24	26.45***
	성격강점(용서)	.38	4.51***	.37	.13	17.56***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x 성격강점(용서)	-.19	-2.25*	.40	.03	5.07*
	양육미혼모스트레스	-.48	-5.26***	.24	.24	26.45***
	성격강점(겸손)	.20	2.19*	.28	.04	5.09*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x 성격강점(겸손)	-.24	-2.64*	.33	.05	6.95*
	양육미혼모스트레스	-.53	-5.90***	.24	.24	26.45***
	성격강점(신중성)	.25	2.78**	.29	.05	6.47*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x 성격강점(신중성)	-.28	-3.16**	.37	.08	9.99**
	양육미혼모스트레스	-.49	-6.13***	.24	.24	26.45***
	성격강점(감사)	.44	5.63***	.45	.21	32.0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x 성격강점(감사)	-.20	-2.47*	.48	.04	6.09*	
양육미혼모스트레스	-.48	-5.27***	.24	.24	26.45***	
성격강점(유머감각)	.33	3.83***	.33	.09	12.1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x 성격강점(유머감각)	-.29	-3.25**	.41	.08	10.57**	

* $p < .05$, ** $p < .01$, *** $p < .001$

지능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사회지능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t(40) =$

-4.34, $p < .001$. 그러나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지능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44) = -1.51$, $n.s.$.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지능 성격강점의 조절효과에 대해 그림 2에 제시하였는데,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고 사회지능 성격강점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지능 성격강점이 낮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사회지능 성격강점 수준간의 삶의 질 정도의 차이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강점 중 공정성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 전체 변량의 2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86)=26.45, p<.001$. 공정성 성격강점은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16%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2,85)=23.27, p<.00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공정성 성격강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3%를 설명하여, $F(3,84)=4.73, p<.0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공정성 성격강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성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점수와 공정성 성격강점 점수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수준과 공정성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공정성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t(40)=-2.30, p<.05$. 또한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공정성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t(44)=-2.35, p<.0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공정성 성격강점의 조절효과에 대해 그림 3에 제시하였는데,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고 공정성 성

격강점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고 공정성 성격강점이 낮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고 낮은 경우에서, 공정성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 정도의 차이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강점 중 용서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 전체 변량의 2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86)=26.45, p<.001$. 용서 성격강점은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1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2,85)=17.56, p<.00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용서 성격강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3%를 설명하여, $F(3,84)=5.07, p<.0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용서 성격강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용서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점수와 용서 성격강점 점수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수준과 용서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용서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t(40)=-3.93, p<0.01$. 그러나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용서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44)=-1.43, ns$.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용서 성격강점의 조절효과에 대해 그림 4에 제시하였는데,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고 용서 성격강점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고 용서 성격강점이

낮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용서 성격강점 수준간의 삶의 질 정도의 차이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강점 중 겸손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 전체 변량의 2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86)=26.45$, $p<.001$. 겸손 성격강점은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2,85)=5.09$, $p<.0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용서 성격강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5%를 설명하여, $F(3,84)=6.95$, $p<.0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겸손 성격강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겸손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점수와 겸손 성격강점 점수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수준과 겸손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겸손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40)=-1.40$, ns . 또한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겸손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t(44)=-1.22$, ns .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겸손 성격강점의 조절효과에 대해 그림 5에 제시하였는데,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고 겸손 성격강점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겸손 성격강점 수준에 관계없이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겸손 성격강점 수준간의 삶의 질

정도의 차이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강점 중 신중성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 전체 변량의 2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86)=26.45$, $p<.001$. 신중성 성격강점은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5%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2,85)=6.47$, $p<.0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신중성 성격강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8%를 설명하여, $F(3,84)=9.99$, $p<.0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신중성 성격강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신중성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점수와 신중성 성격강점 점수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수준과 신중성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신중성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 $t(40)=-1.70$, $p<.10$. 또한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신중성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44)=-0.20$, ns .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신중성 성격강점의 조절효과에 대해 그림 6에 제시하였는데,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고 신중성 성격강점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신중성 성격강점 수준에 관계없이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신중성 성격강점 수준간의 삶의 질 정도의 차이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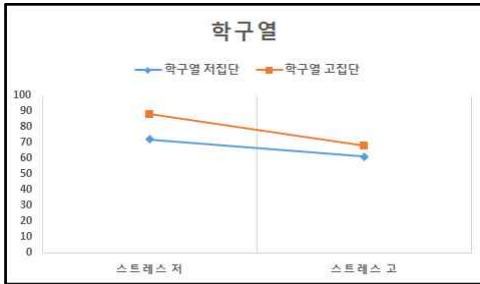


그림 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학구열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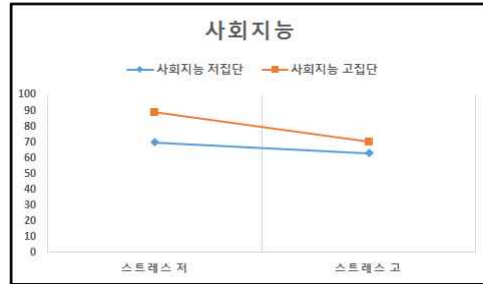


그림 2.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지능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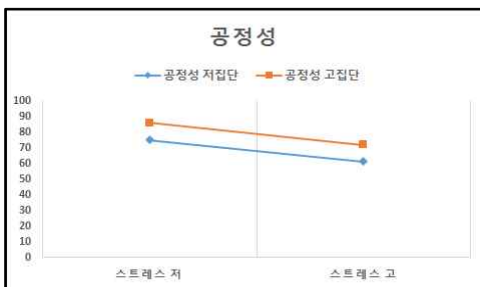


그림 3.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공정성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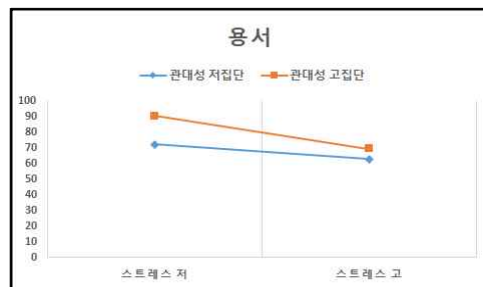


그림 4.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용서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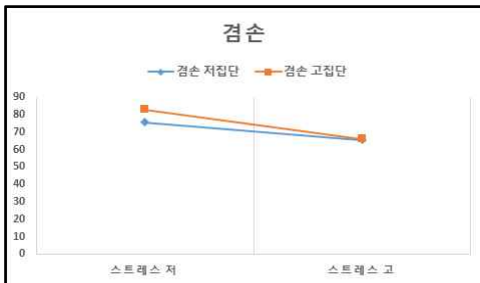


그림 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겸손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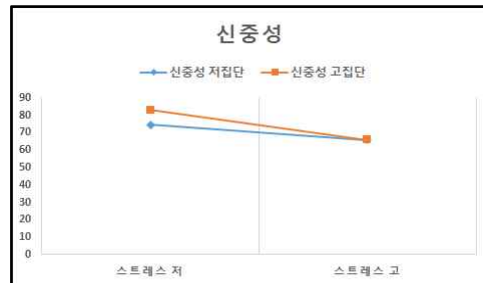


그림 6.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신중성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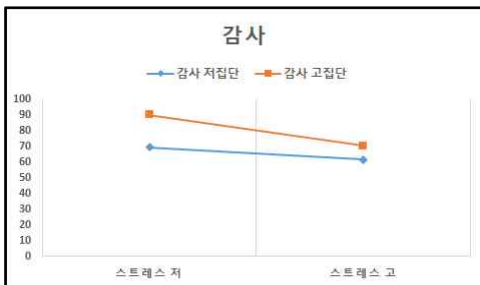


그림 7.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감사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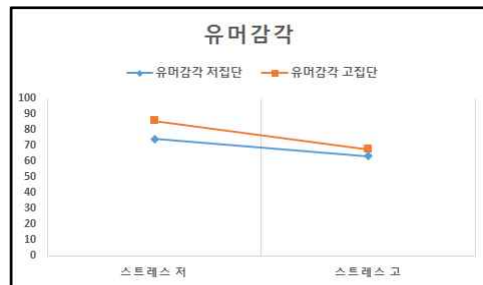


그림 8.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유머감각 성격강점의 조절효과

영향과 성격강점 중 감사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 전체 변량의 2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86)=26.45, p<.001$. 감사 성격강점은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21%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2,85)=32.05, p<.00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감사 성격강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4%를 설명하여, $F(3,84)=6.09, p<.05$,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감사 성격강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감사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점수와 감사 성격강점 점수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수준과 감사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감사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t(40)=-4.90, p<.001$. 그러나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감사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44)=-1.95, ns$.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감사 성격강점의 조절효과에 대해 그림 7에 제시하였는데,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고 감사 성격강점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고 감사 성격강점이 낮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감사 성격강점 수준간의 삶의 질 정도의 차이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강점 중 유머감각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 전체 변량의 24%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86)=26.45, p<.001$. 유머감각 성격강점은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9%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2,85)=12.11, p<.0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유머감각 성격강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8%를 설명하여, $F(3,84)=10.57, p<.0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유머감각 성격강점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유머감각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점수와 유머감각 성격강점 점수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수준과 유머감각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유머감각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t(40)=-2.43, p<.05$. 그러나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유머감각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44)=-0.94, ns$.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유머감각 성격강점의 조절효과에 대해 그림 8에 제시하였는데,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고 유머감각 성격강점이 높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고 유머감각 성격강점이 낮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유머감각 성격강점 수준간의 삶의 질 정도의 차이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표 6. 양육미혼모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기준변인	예언변인	β	t	R^2	R^2 change	F change
삶의 질	양육미혼모스트레스	-.40	-4.79***	.23	.23	26.45***
	사회적 지지	.45	5.46***	.40	.17	26.07***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x 사회적 지지	-.25	-3.18**	.46	.06	10.13**

** $p < .01$, *** $p < .001$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양육미혼모스트레스가 삶의 질 전체 변량의 23%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1,86)=26.45$, $p < .001$.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17%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F(2,85)=26.07$, $p < .001$.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대해 추가적으로 6%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F(3,84)=10.13$, $p < .01$,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점수와 사회적 지지 점수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양

육미혼모 스트레스 수준과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t(40)=-2.82$, $p < .01$. 그러나 양육미혼모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44)=-1.32$, ns .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해 그림 9에 제시하였는데, 양육미혼모스트레스가 낮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미혼모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삶의 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육미혼모스트레스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사회적 지지의 수준 간에 삶의 질 정도의 차이가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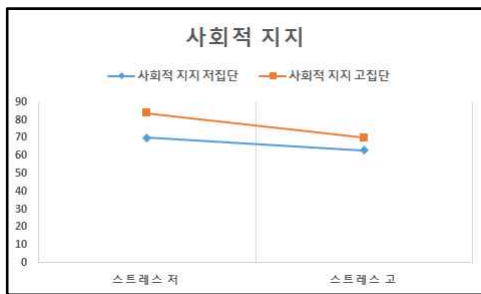


그림 9.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논 의

본 연구는 양육미혼모라는 특정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양육미혼모가 겪는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군 중에서는 직업유무와 질병유무, 스트레스 변인군 중에서는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직업스트레스, 개인내적 변인군 중에서는 낙관성,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 사랑, 기타 보호요인군 중에서는 양육의지가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이 삶의 질의 75%를 설명하였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직업유무와 질병유무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업을 구하거나 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데, 본 연구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은 마치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삶의 질에 있어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신체적 건강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더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작용하는 기본적인 요소로(김의철, 박영신, 2006), 특히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양육미혼모 본인의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 전제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있어, 연령이나 학력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있어, 월수입, 부채 등 경제적 요인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박영신과 김의철(2006)은 사람들이 많은 요인들 중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경제적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경제력보다는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이 더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변인에 있어서, 월수입 등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직업유무나 건강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척도의 각 스트레스원을 투입하였을 때,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중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12%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고, 직업 스트레스가 5%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척도에서 가족관계 스트레스원은 양육미혼모가 원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부모에 대한 죄책감, 가족들의 비난,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의 스트레스를 겪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양육미혼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미혼모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원가족과 관계가 멀어지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때로 거절이나 비난을 받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듯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인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 스트레스원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대한 고민 등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부모가 되면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렇듯

양육미혼모가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미래에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문태정(2003)은 미혼모들이 보호시설에서 떠나 사회에 복귀하게 될 때 진로선택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고 제안했다. 특히 가족의 지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업 선택과 유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인내적 변인군으로 성격강점과 성격병리5요인을 투입하였을 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변인은 낙관성 성격강점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대한 낙관성 성격강점의 설명량은 약 22%이었다. 낙관성 성격강점은 최선을 예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김지영, 2104), 낙관성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적응에 있어 낙관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고(Aspinwall & Taylor, 1992; Brissette, Scheier, & Caver, 2002), Aspinwall과 Taylor(1990)는 낙관성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중재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정신건강을 예언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김혜정, 백용매, 2006에서 재인용). 또한 낙관성은 주관적 삶의 만족감, 능동적 대처 등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변인이며(권석만, 2008; Carver, Scheier, Segerstorn, 2010), 외상 후 성장을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Linley & Joseph, 2004).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낙관성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낙관성 성격강점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처하도록 돕는

다는 측면에서 삶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며, 양육미혼모가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격강점 중 사랑 성격강점은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을 약 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작지만, 사랑 성격강점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며 깊이 있는 애정을 주고받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김지영, 2014), 사랑 성격강점은 감사 성격강점과 더불어, 동서양에서 행복한 삶이나 충만한 삶에 가장 강력하게 예측인자이다(윤성민, 신희천, 2012). 과거 자녀의 아버지나 원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상처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 성격강점을 지닌 양육미혼모가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병리 5요인(PSY-5) 중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신경증과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8%와 5%의 설명력을 보였다. 성격병리 5요인 중 공격성, 정신증, 통제결여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양육미혼모가 슬픔, 불안, 걱정 등 부정적 정서를 쉽게 경험하는 등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요인이 높거나, 즐거움, 긍정적이고 유쾌한 감정을 경험하기 힘든 등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 요인이 높은 것이 삶의 질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성격병리 5요인 중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는 우울증과 관련 있는 성격 요인으로 제안되었다. 예를 들어, 탈북여성에 대한 최빛내와 김희경(2011)의 연구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탈북 여성일수록 심리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Graham과 Ben-Porath, McNulty(1999)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요인과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 요인 점수가 높은 사람은 우울증이나 기분부전 장애로 진단받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미주, 권지은, 황순택(201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및 일반인의 우울을 예측하는 성격병리 5요인은,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 정신증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성/신경증과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은 우울과 관련 있고, 우울삽화를 보이는 집단이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볼 때(Rocha, Power, Bushnell, & Fleck, 2009), 양육미혼모에게 있어 성격병리 5요인 중 부정적 정서성/신경증과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은 우울이나 정신건강과 관련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Diener, Suh, Lucas 및 Smith(1999)는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성격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강력하고 일관성을 지닌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하였는데(유태용, 한태영 외, 2006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대상자인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 성격 요인은 낙관성 성격강점,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 사랑 성격강점이였다.

넷째, 기타보호요인군 중에서는 양육의지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재할 의지, 단주의지 등의 의지가 삶의 질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양운모, 2007; 임선옥, 2002), 미혼모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양육 결정 이전 단계에서

양육을 하고자 하는 동기나 이유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양육을 결정한 이후 실제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지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이성원, 2009). 양육 미혼모는 과거 자녀를 입양 보내거나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후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입양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거나 입양을 다시 고려하게 될 여지를 지닌다(이성원, 2009). 이렇듯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자신감, 양육 의지 등을 높이는 것이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혼모의 삶의 만족감을 살펴본 남미애(2013)의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 부모지지, 편견과 차별이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요인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관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남미애(2013)의 연구와 연령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남미애(2013)의 연구 대상은 24세 이하에 미혼모로, 자녀를 키우면서 살기로 선택한 초기에는 주변의 시선이나 차별, 부모지지, 양육스트레스가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겠으나, 평균연령 30세 이상의 양육미혼모인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고, 직업유무, 질병유무, 가족관계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 낙관성, 사랑, 부정적 정서성/신경증,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 양육의지가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을 75%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별 성격강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 사이에서 VIA 분류 체계에 따른 24개의 개별 성격강점 중 학구열, 사회지능, 공정성, 용서, 겸손, 신중성, 감사, 유머감각 성격강점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조절효과 크기가 작아(=.01.~.05, 정태환, 황성훈, 2015),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표본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양육미혼모 스트레스 수준과 개별 성격강점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서 학구열, 사회지능, 공정성, 용서, 신중성, 감사, 유머감각 성격강점의 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의 정도가 높았다.

조절효과를 보인 개별 성격강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구열 성격강점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며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권석만, 2011),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동안 흥미를 많이 느낄수록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며 장기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안녕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Helson & Srivastava, 2001; Sansone, Wiebe, & Morgan, 1999, 권석만, 2011에서 재인용).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양육미혼모에게 있어, 학구열 성격강점을 활용하여 직업 활동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능 성격강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조절함으로써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개인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판단력이 우수하며 사회적 적응상태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석만, 2011). 양육미혼모에게 있어서도 모든 인간관계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회지능 성격강점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지능 성격강점을 향상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등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용서 성격강점은 잘못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며 앙심을 품지 않는 너그럽고 관대한 태도로(김지영, 2014),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대인관계에서 깊은 상처로 인한 분노나 불안, 우울을 치료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특히 용서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범죄사건의 피해자 등 부당한 관계 경험으로부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다(강주희, 박종효, 2014; 박양리, 현명호, 2012; 박종효, 2003; 박종효, 2012). 양육미혼모는 자녀의 아버지, 원가족 등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거절, 배신, 냉대와 비난을 받는 등 부정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한다거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시선을 받거나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용서 성격강점은 양육미혼모에게 있어 중요한 덕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 성격강점은 긍정적인 면을 잘 알아차리고 이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로(김지영, 2014),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어진 것을 감

사하게 여기는 내면적 태도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것이다(Emmons & Shelton, 2002; 권석만, 2011에서 재인용). 감사는 주관적 행복과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성격특질로, 감사의 특질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 긍정 정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Adler & Fagley, 2005; Friedman & Toussaint, 2006; 권석만, 2011에서 재인용). 또한 유머감각 성격강점은 웃고 장난치는 일을 좋아하며 타인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능력으로(김지영, 2014), 자신의 한계를 유쾌한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인간관계를 증진시킨다(권석만, 2011). 감사와 유머감각 성격강점은 상위 덕목인 초월 덕목에 해당하는 성격강점으로, 인간의 삶을 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권석만, 2011). 과거 혼전 임신 및 출산 등을 겪은 양육미혼모에게 있어서 초월 덕목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의미를 부여하여 현재를 살고,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칠 때 이와 같은 초월 덕목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덕목인 것으로 여겨진다.

상기 성격강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인 사회적 지지도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가 어떤 스트레스에 당면했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여러 정보 등을 제공받으며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다. 우울과 삶의 질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소아암과 같은 질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

지의 조절효과가 있었으나, HVI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영란, 2004; 임세아, 김일옥, 2013). HVI 감염인은 성매개 질환으로 사회적 낙인이 짙혀 단순히 사회적 지지는 조절이 어렵다고 보았는데(임세아, 김일옥, 2013),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이는 바,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관련된 정보를 얻는 등의 지원이 삶의 질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 학구열, 사회지능, 용서, 겸손, 신중성, 감사, 유머감각 성격강점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공정성 성격강점의 경우,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거나 높은 경우 모두에서, 공정성 성격강점의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보였다. 즉, 공정성 성격강점을 지닌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공정성 성격강점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성향을 극복하고 구성원의 평등성을 중시하면서 공정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공정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 개인적인 편견과 감정을 유보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권석만, 2011). 원두리(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공정성 성격강점은 희망, 용기, 학구열 성격강점과 함께 적응적 대처양식을 예측하였고, 권석만(2011)은 공정성 성격강점이 높은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도덕적 이상에 따라 살아 자기존중감을 갖게 되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

회적으로 행복과 복지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즉, 긍정성 성격강점이 높은 양육미혼모는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개인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적응적 대처양식과 자신과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해보면,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서 개별 성격강점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면 삶의 질의 정도가 높았고,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긍정성 성격강점을 제외한 다른 개별 성격강점이나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양귀화와 김종남(2014)의 연구에서, 낙관성은 외상 경험 이후 정서적 고통과 정서조절 곤란이 심한 상태, 침습적 반추가 심한 상태에서는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부적효과를 완충시켜 주지 못했으나, 개인이 외상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숙고하는 의도적 반추 단계에서는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연구자들은 정서적 고통과 정서조절 곤란이 심한 상태에서는 낙관성을 촉진하는 선부른 개입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제안하였고, 외상 경험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해졌을 때, 낙관성이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외상 경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선부르게 성격강점이나 사회적 지지를 촉진시키는 개입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만을 측정하였으나, 긍정심리학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방안으로, 자신의 성격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김현미, 2016), 자신의 성격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정도에 대한 측정 및 양육미혼모 스트레스의 심각도에 따른 성격강점의 활용 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성격강점 외 인간의 긍정적 특성 중 높은 양육미혼모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절 변인들을 탐색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결과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육미혼모라는 특정 대상 집단의 삶의 질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 있는 요인을 살펴본 본 연구 결과는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개입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양육미혼모의 정신건강이나 행복,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가 드물고 특히 성장, 개인적 강점 등 긍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본 연구는 양육미혼모의 긍정적 특성 중 성격 강점에 대해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성격강점 뿐만 아니라 성격강점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사용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대표강점이나 강점 활용 등을 측정한다면, 양육미혼모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긍정적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특정 지역의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양육미혼모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주로 간편형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측정하였다는 점과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반응 왜곡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보고식 측정 외에 평정이나 관찰법 등 측정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조절효과 크기가 작은데, 표본 수를 증가시킨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김주희, 박종효 (2014).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용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상담학연구, 15(6), 2245-2267.
- 김현아 (2007).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5, 145-165.
- 고숙경 (2002).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공강석, 하승수 (2015). 경찰관 직무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격강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1(1), 43-63.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긍정심리학의 관점. 서울: 학지사.
- 권석만, 유성진, 임영진, 김지영 (2010). 성격강점검사: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김만지 (2000).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인의 행복 현주소: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2003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171-172.
-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한영석, 유기설 (2003). 한국 남녀의 삶의 질 차이에 관한 연구. 2003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5-236.
- 김선영, 윤혜영 (2013). 은퇴 남성의 은퇴스트레스, 성격 강점, 결혼불만족이 은퇴 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553-576.
- 김영신 (2001).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비혼모의 출산과 양육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5(1), 27-58.
- 김유정, 조애저, 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1-28.
- 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2005). 다면적 인성검사-2 매뉴얼. (주) 마음사랑.
- 김지영 (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 및 덕성과 성격장애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11), 75-99.
- 김현경, 이민영 (2008). 자발적 비혼모의 선택 체험에 관한 연구: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24, 5-36.

- 김현미 (2016). 성격의 대표강점과 안녕감과의 관계 및 대표강점의 활용에 기반한 안녕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란 (2006). 한부모 여성가장의 스트레스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수준.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선, 김은하 (2006). 미혼양육모의 양육결정 체험: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 373-393.
-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안상수 (2009).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정, 백용매 (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우울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3), 683-699.
- 김희주, 권중희, 최형숙 (2012). 양육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6), 121-155.
- 남미애 (201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 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55, 91-125.
- 노승미 (2002). 미혼모가 된 과정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 김원희 (2004). 시설거주 미혼모의 입 양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7, 49-79.
- 문태정 (2003). 미혼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척도 (WHOQOL-BREF)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3), 571-579.
- 박수현 (2010). 동성애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대처 전략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양리, 현명호 (2012). 용서치료 프로그램이 성인 아이의 부정적 정서 및 주관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2), 275-297.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302-321.
- 박종효 (2012). 한국 성인의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구조적 관계 탐색: 대인관계 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415-432.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영미 (2001). 청소년 미혼모의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10(1), 51-80.
- 변호순, 최정균 (2016).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 대와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3, 1-23.
- 서혜영 (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혜영, 이숙현 (2002). 아버지의 직업만족도 및 가족만족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4(3), 27-51.

- 양귀화, 김종남 (2014). 외상 후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 정서조절곤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의 삼중매개효과와 낙관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041-1062.
- 양민욱 (2012). 초등학교 자녀를 둔 미혼양육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윤모 (2007).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모임(AA)이 단주의지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영란 (2004).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경인 지역 소아암 환자 부모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원두리 (2011). 성격 강점이 청소년의 안녕감과 적응적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151-167.
- 유태용, 한태영,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노혜미 (2006). 성격이 실직자들의 행동, 생애만족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07-124.
- 윤미현 (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 입양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성민, 신희천 (2012). 한국 수도권 중년여성들의 성격적 강점과 행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27-49.
- 윤영주 (2001). 한국 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명순, 박주현 (2008). 입양을 결정한 10대 미혼모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187-205.
- 이미정 (2009). 국내외 입양과 미혼모 복지,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성원 (2009). 미혼 양육모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선옥 (2002). 재가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세아, 김일옥 (2013). HVI 감염인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2), 363-378.
- 임영진 (2012). 성격강점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13-730.
- 전미주, 권지은, 황순택 (2011).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성격병리 5요인(PSY-5)의 관계. *인간이해*, 32(2), 109-125.
- 전주연, 이종연 (2015). 지체장애학생 어머니의 초월 성격 강점, 삶의 목적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2(3), 565-581.
- 전혜자, 김미량 (2006).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0(3), 115-124.
- 정태환, 황성훈 (2015). 회피성 성격 성향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조절작용. *한국심리치료학회지*, 7(2), 127-141.
- 최빛내, 김희경 (2011).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95-212.
- 최은미 (2009). 성격강점이 성인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홍봉선, 남미애 (2001).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학연구*, 18(9), 19-52.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Brissette, I., Scheier, M. F., & Ca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2-111.
- Carver, C. S., Scheier, M. F., Segerstorn, S. C. (2010). Optimism.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879-889
- Duke, H. D., Rose, H. A., & Halverson, C. F. (1997). Predictors of parenting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58th NCFR Conference, Kansas City, Missouri.
- Graham, J. R., Ben-Porath, Y. S., & McNulty, J. L. (1999). *MMPI-2 correlates for outpatient mental health sett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arkness, A. R., & Lilienfeld, S. O. (1997). Individual differences science for treatment planning: Personality traits. *Psychological Assessment*, 9, 349-360.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P. (2006). Greater strengths of character and recovery from ill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17-26.
- Proctor, C., Maltby, J., & Linley, P. A. (2011). Strengths use as a predictor of well-being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 153-169.
- Rocha NS., Power, M., Bushnell, D., Fleck, M. (2009). Is there a measurement overla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Comprehensive Psychiatry*, 30, 549-555.
- Shimai, S., Otake, K.,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6). Convergence of character strengths in American and Japanese young adul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11-322.
- Veronika, H. & Lance, H. (2010). Psychological strengths and cognitive vulnerabilities: Are they two ends of the same continuum or do they have independent relationships with well-being and i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71-93.
- 1차원고접수 : 2017. 02. 23.
심사통과접수 : 2017. 05. 31.
최종원고접수 : 2017. 06. 18.

Quality of Life of Unmarried Mothers: A Study of Character Strengths

Yoon-A Park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unmarried mothers, and to explore moderating effects of the character strengths and the social support between unmarried mothers' stress and quality of life. We measured unmarried mothers stress, quality of life (WHOQOL-BREF), character strength, social support, parental role satisfaction, stigma, parenting motivation,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 scale, parent support and paternal support. The results showed employment status, health status, family-of-origin stress, work-related stress, optimism, love, negative emotionality/neuroticism, introversion/low positive emotion, and parenting motiv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quality of life of unmarried mothers. This study verified moderating effects of character strengths: love of learning, social intelligence, fairness, forgiveness, humility, prudence, gratitude, sense of humor and social support on relation between unmarried mother stress and quality of life. We discussed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of unmarried mothers. Finally,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positive psychology about unmarried mothers, and we discussed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and proposed future research.

Key words : Unmarried Mother, Quality of Life, Character Strength, Social Support